

[인터뷰] 가르침에 대한 성찰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자 릴레이 인터뷰



최명애:
1966~1970년 서울대학교 간호학 학사
1971~1973년 서울대학교 간호학 석사
1974~1976년 경북대학교 교육학 석사
1981~1984년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생리학 전공)
1986~현재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체력과학 노화연구소 상
임연구원
1998~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
호학과 교수
2004~현재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
구소 소장

본지에서는 지난 1호부터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한 일곱분의 교수 각인으로부터 교육상 수상 소감과 더불어 가르침에 대한 소신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간호대학의 최명애 교수를 만났습니다.

'제1회 서울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때에 교육자이면서 학자로서, 이런 상을 받게 되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쏟았던 열정이 이렇게 상을 받음으로써 보상을 받았다는 기분도 들었지요. 저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정말 유능한 간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돕고자 늘 노력해왔습니다. 수상과 함께 앞으로 학생들 교육에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도 생겼고요.

수상의 계기나 경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상을 받게 된 이유는 저희 학생들의 강의 평가에서 줄곧 가장

좋은 성적을 얻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무엇보다 제가 간호학의 기초과목을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재정립한 데서 가능했던 것이지요.

간호학이 발전하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르쳐왔던 간호학의 전공 과목들은 간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르치게 되었습니다만, 이 과목들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연 과목들—해부학·생리학 등—은 그동안 제가 배울 때도 그랬고, 1992년 간호학과가 의과대학으로부터 독립하여 간호대학이 된 이후에도 모두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치셨지요. 이 교수님들은 의학을 전공하였으므로 간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강의에 있어서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체로 그분들은 이러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당신들이 가진 전공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저는 간호학 배경을 가지고 의과대학에서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에 부임을 했을 때 이미 우리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재정리하여 간호학의 기초자연 과목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체 구조와 기능, 병태생리학 등의 기초간호과학 교과서를 쓰게 되었고, 강의도 새롭게 하게 되었지요. 사실 여느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초가 되는 내용이란 아주 방대하고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기초자연 과목을 정립하면서, 양도 많고 어려운 내용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늘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강의에 있어서도 저는 충실한 강의 준비와 명확함을 엄격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물론 일단은 강의 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학생들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나 많은 내용은 단계별로 설명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의 질문을 많이 유도하지요. 학생들의 질문이 없을 때는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질문을 아주 잘합니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도 하지만, 저 또한 도전을 받지요. '이 내용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희의 학부 시절에는 단순히 책을 읽거나 본인이 준비해온 자료를 읽는 것으로 강의를 대신하는 교수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나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는 방대하고 심도 있는 내용을 교수자가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설명하는 경우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컸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되살려 저는 강의 준비에 특히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데 준비할 것이 별로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새로 나온 책들을 통해 개선된 관점들을 추가하고, 설명을 위한 더 나은 자료나 그림·사진 등을 보충하고, 새로운 설명 방식을 개발하려면 늘 시간이 모자라지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교수는 가르치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모델로서의 역할자이기에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지요. 이는 학생들의 수강 소감에서 잘 드러납니다. 중강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가 했던 강의인 '인체 구조와 기능 및 실험'에 대한 수강 소감에서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연구하시고 외국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하시고 존경합니다.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같은 멋진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처럼 멋진 학자가 되고 싶어요.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좋은 간호학도가 되고자 합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교수님의 열정을 잊지 못하고 감사함을 가슴속에 담아둘 것 같아요. 교수님 기대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저의 길을 찾아서 교수님처럼 많은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과 열정을 전할 수 있는 간호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간호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이는 교수의 교육자·학자로서의 역할에 덧붙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 모형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교수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실험을 통한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간호학이 과학으로써 뒷받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이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제가 가르쳐온 ‘인체 구조와 기능 및 실험’이 대표적이지요 저는 그동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들을 데리고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실험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육부가 주최하는 대학생 논문발표대회에 이 학부생들은 네 차례나 입상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학부생들을 실험에 참여케 한 데에는 간호기초 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들에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이 분야를 공부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저희 대학 학생들은 학부를 졸업하면서 거의 임상 분야로 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일제 대학원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도 병행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지요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간호과학을 전국의 간호교육기관에서 간호학의 기초과목으로 전공과목과 대등하게 정착시키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 국내의 3년제 간호대학들, 혹은 의과대학 내 간호학과로서 존재하는 간호교육기관들은 대부분 기초간호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요 저의 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간호교육기관이 이 기

초과목을 간호학의 기초과목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전공과목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저는 그 시기를 앞당기도록 애써왔습니다

1999년도에 교과과정을 개편하면서 대한기초간호자연과학회를 만든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지요 교수님들이 기초분야를 가르치시고 연구도 하시지만, 정작 이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서로 대화하고 자극을 줄 학술적인 장이 그때까지는 전무했습니다 이에 관해 저와 뜻을 같이하시는 몇 분 교수님들이 계신 덕분에, 늦었지만 학회를 창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 회장으로 4년간 일을 했고요, 학회는 처음 창립할 때보다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 장을 내실 있게 키워가는 일이 제게 주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